

제주도 운명신이 들어 올린 때

허 남 춘 제주대, 제주참여환경연대 고문

제주도 신화 속에 <삼공분풀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거기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감은장이다. 부모가 가난하여 이웃이 검은 나무구름에 죽을 췌어 줘서 얻은 이름이다. 이 셋째 딸이 태어나고부터 집안이 서서히 일어난다. 부자가 된 후 부모는 세 딸을 불러 묻는다. 감은장은 누가 덕에 먹고 사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 복에 산다고 했다.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쫓겨나긴 했지만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 집을 나온 감은장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길을 떠나다 마를 캐는 남자 셋을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바른 생각을 하는 셋째를 자신의 배필로 삼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장 섹수가 있는 남자를 골라 정한 것이다.

자신은 부모에게 쫓겨난 신세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남자를 택하고, 머느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올 때 가져 온 금 불이를 팔아 쌀밥을 해드린다. 수렵과 채취를 하는 세상에 들어가 농경문화를 전하는 문화영웅의 모습도 보여 준다. 그 놀라운 밥을 먹은 셋째는 귀한 음식을 얻은 연유를 묻자 금을 보여 준다. 그런 셋째는 자기가 마를 파는 곳에 지천으로 널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을 캐서 큰 부자를 이루게 된다. 감은장 아기의 지적 능력으로 금을 발견하고 부를 이룬 것이다.

그 후 다시 부모의 운명을 바꾸어 드리고 감은장은 전상신이 되었다고 한다. 자발적인 능력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운명의 신이 된 것이다. 전상이란 전생(前世)에서 왔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다르게 쓰인다. 전상은 오래 지닌 습(習)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현실 속의 행동을 뜻한다. 생각이 맑거나 남과 나누어 먹는 행위나 마음가짐을 좋은 전상이라고 하고, 술을 많이 먹거나 씩씩이가 커서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마음가짐을 나쁜 전상이라고도 한다. 한편 전상을 '사록'이라고도 하는데, 하(下)사록을 내물고 상(上)사록을 불러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일깨워 준다. 이런 신화 뒤에 오는 놀이(전상놀이)에서 감은장이 부모가 막대를 들고 나쁜전상을 두들겨 패서 내쫓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전상만 남게 한다. 상(上)사록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하(下)사록을 쫓아버리던 천하 거부가 된다. 삼공신은 나쁜 인연을 털어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신, 운명의 신이다.

우리 인생은 전생의 인연에 지배되기도 하지만 과거 인연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시절 인연'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국화 씨앗에서 나팔꽃이 피게 할 수는 없지만, 가을에 피는 꽃을 봄에 피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

이다. 나쁜 전상을 버리고 좋은 전상을 만나 보자. 스스로 노력하면 얻어진다. 운명의 반은 정해진 것이 있을지라도 나머지 반은 바꾸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인생이 그러하듯 우리 사회의 운명도 개척하는 것이다. 회초리를 들고 나쁜 전상을 두들겨 패서 내쫓는 적극적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내물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나쁜 지도자를 만났다면 나쁜 지도자를 내물고, 나쁜 정책을 시행되려 한다면 나쁜 정책을 막아야 한다. 제2공항이 제주를 파괴하는 근원이 된다면 당연히 막아내고, 회초리로 때려 몰아내야 옳다. 제주시 탐동에는 신항만을 위해 40만 평의 매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엄청난 시련에 맞서야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 삶이 낙관적으로 바뀌는 법이다. 그래서 싸움이 화해가 되고, 이어 화합이 되는 법이다.

제주 신화 속의 감은장은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 일깨워 준다. 제주 신화는 우리에게 인생 한 수를 가르치고 있다. 귀 기울여 보라. 철학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제주도 본풀이 노랫가락 속에 철학이 있다. 하늘이 높아도 비는 내리는 법이다. 우리가 꾸준히 비가 올 때까지 빌면 되지 않겠나.



활동 이모저모

11월

- 11월 1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박유라 국장)
- 11월 4일 제2공항 공론화특위구성촉구 철야농성(도의회 앞)
- 11월 5일 MBC뉴스데스크 지하수문제 현장인터뷰(홍영철 공동대표)
- 11월 6일 제2공항 2020예산삭감 국회 출장(홍영철 공동대표) 공론화 특위구성! 기본계획고시중단! 1차 제주도민 촛불집회(도의회 앞)
- 11월 7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제주워크숍 강연(홍영철 공동대표)
- 11월 8일 탐라생태안내자 수료식 공론화 특위구성! 기본계획고시중단! 2차 제주도민 촛불집회(도의회 앞)
- 11월 10일 용천수 살림프로젝트(대정 용천수 모니터링)
- 11월 11일 용천수 살림프로젝트(조천 용천수 모니터링) 공론화 특위구성! 기본계획고시중단! 3차 제주도민 촛불집회(도의회 앞)
- 11월 12일 제2공항 반대 자전거 행진
- 11월 13일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학생 인터뷰 제2공항 공론화특위구성촉구 철야농성(도의회 앞)
- 11월 14일 공론화 특위구성! 기본계획고시중단! 4차 제주도민 촛불집회(도의회 앞)
- 11월 19일 훼손 오름 모니터링(새별오름)
- 11월 25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11월 26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박유라 사무국장)
- 11월 28일 훼손 오름 모니터링(용논이오름)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과제 자문회의(홍영철 공동대표)

12월

- 12월 2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홍영철 공동대표)
- 12월 5일 KBS본부 오버투어리즘 관련 인터뷰(홍영철 공동대표)
- 12월 9일 오름 자문회의(홍영철 공동대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홍영철 공동대표)
-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안종희 이사)
- 12월 11일 훼손 오름 모니터링(새별오름)
- 12월 15일 #공항말고, 감귤! 투쟁기금 마련 김광수학(난산)
- 12월 16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정기 이사회
- 12월 17일 기부금영수증 실무교육(박유라 국장)
- 12월 18일 용천수 살림프로젝트 결과 공유회
- 12월 19일 거점별 제2공항 반대 대도민 캠페인(8호광장)
- 12월 20일 동북아환경중심도시 자문회의(KEI(홍영철 공동대표)
- 12월 23일 제2공항 없는 제주, 함께 지키는 후원주점(미래컨벤션)
- 12월 24일 훼손 오름 모니터링(용논이오름)
- 12월 26일 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자문회의(박유라국장)
- 12월 27일 제2공항 도민결정권 쟁취 국토부-원희룡 도정 규탄 송구영신 범도민 결의대회(제주시청)
- 12월 31일 2020 경자년 제2공항 끝장투쟁 선포대회(성산)

새해맞이 제2공항반대 거리시위(2020.1.1)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단체 활동가들은 새해 해맞이를 성산일출봉 초입 로터리에서 제2공항 반대 거리시위로 대신하였습니다. 새해부터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와 원지사의 언론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0년엔 도민의 힘으로 제2공항은 멀리 보내버리고, 도민 결정권까지 되찾아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항말고, 감귤! 투쟁기금마련 감귤파기(12.15)



"평생해은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선조들이 천 년 이상 지켜온 마을을 나도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김형주 난산리장님을 응원하고, 제2공항을 막아내려고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김형주 이장님이 정성스레 기른 귤을 따서 판매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250만원이란 투쟁기금을 난산리 비대위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 수료식(11.5)



지난 4월부터 한차례 달려온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 대망의 수료식이 지난 11월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제주의 환경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선생님부터, 우리가 품고 안착해야 하는 것은 자연이란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선생님까지. 이번 교육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주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료하신 10명의 쌤들, 축하드립니다!!

용천수 살림프로젝트 결과 공유회(12.18)



우리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용천수와 지하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초전을 용천수 19곳과 대정, 안덕 용천수 14곳의 수위와 수온, 염도를 측정해 기록한 후, 그 변화상을 살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만은 않은 것만 사실을 깨달은 1년이었는데, 물때에 맞춰 조사를 했지만,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10분 동안 수위가 3-5cm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빗물에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빗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용천수도 있었던 사실! 빗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용천수는 지표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제주 지하수 수위의 증감을 반영할 것이라는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용천수살림 프로젝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용천수와 지하수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 나갈 예정입니다!

훼손오름, 대안을 말하다! - 2019 용논이 · 새별 훼손오름 모니터링 갈무리 -

- 탐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 적절한 탐방 유도 시설이 필요하다.



새별오름과 용논이오름 모두 하루 최소 500명에서 최대 3000명의 탐방객이 탐방을 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는 탐방객이 폭증하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두 오름 모두 휴식년 대상 오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러 여건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탐방객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내내 제한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만이라도 제한탐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탐방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내문과 물리적 제지가 아니라 심리적 제지가 되도록 낮은 이탈 방지책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차오름처럼 탐방로 옆에 큰 돌을 놓거나, 식물을 식재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탐방객 스스로가 탐방로를 이탈하면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름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훼손에 취약한지 알리는 안내판이 필요하다.

■ 제한 조치와 더불어 현재 탐방로 상 황을 개선하는 것을 병행하여야 한다.



■ 대규모 단체 탐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최근 새별오름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모니터링 기관과 협의를 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런 알림이나 협조 요청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아쉬운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보강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탐방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자문을 얻고 공사 감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

수학여행단의 오름 탐방은 단시간 다수가 오름을 탐방하게 되어 오름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수학여행의 목적으로 오름을 선택하려 한다면, 오름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 오름으로 나누어 분산하여 탐방하여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 교육청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서 수학여행시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한 대규모 탐방을 피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